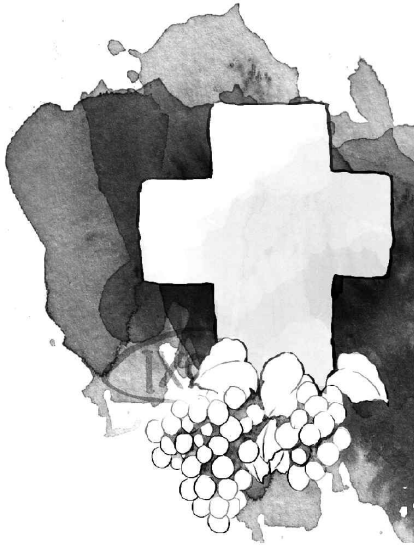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4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X3)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담임 목사
- ▲ 경배의 찬송 20.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나 홀로 걷는 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걷는 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바른 사회가 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 거짓을 만들어내고 사건을 조작하는 일이 이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늘 사실과 진실을 기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짓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사 60:20 인도자
- ▲ 교 독 문 60. 시편 139 다 함께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 2부목회기도 김기석 목사
- 2부응 답 송 찬양대
- 2부찬 양 309. 목마른 내 영혼 다 함께
- ▲ 성경봉독 빌 1:3-11 I. 인도자
II. 이명희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원해 I. 여성중창단
..... 예수, 존귀한 이름 II. 찬양대

예수 어린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양 존귀한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x2)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을 이름을 높이리
 예수 어린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양 존귀한 이름 아멘

말 씀	사랑과 분별력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새 교우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의 아픔에 동참하며 사십시오. ‘나에게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의 교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다 함 께:	아멘. 주님, 우리에게 사랑과 지혜의 길을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끼고 돌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깊고 풍성한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달라이 라마와 투투 대주교의 대화

달라이 라마가 말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모두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천 명이 있더라도 모두 같은 인간이에요. 만 명, 십만 명 역시 똑같은 인간입니다.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육체적으로요. 그러니 장벽이란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아주 차분하고 편안해집니다. 자신을 강조하고 자신을 특별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더 많은 근심과 불안이 생겨요. 모순적인 것은, 더 큰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신을 중심에 두지만, 결국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만다는 것이지요. 자신에게만 너무 집중하면 다른 이들과 단절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유대를 맺어야 하니까요.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큰 두려움이나 불신을 가져오며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혈압마저 오르게 해요. 수년 전, 저는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열린 의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의 학회에 참석한 일이 있어요. 참가자들 가운데 한 명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일인칭 표현을 쓰는 사람들, 즉 ‘나는, 내가, 나를, 내 것은, 나의’ 하고 계속 말하는 사람들에게 심장마비가 올 위험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가 그 이유까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게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느꼈어요. 자신에게만 집중한다면 시야가 좁아지고, 그렇게 되면 작은 문제라도 균형에서 벗어나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또 두려움과 불신도 자신에게만 너무 집중할 때 생겨납니다. 자신을 인류의 형제자매들과 언제나 분리하게 되고, 외로움을 가져오고, 다른 이들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지요.

결국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므로, 타인들과 함께 살아야 해요. 각 개인의 관심사나 미래는 다른 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자신

을 그들로부터 격리한다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그저 걱정과 스트레스만 늘어날 뿐이죠. 때로 저는 너무 강한 자기중심성이 내면의 문을 닫게 만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이들과 소통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을 가질 때 내면의 문도 열리고 아주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어요.”

...

“대주교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가요? 물론 대주교님께서 수도승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방에서 혼자 오랜 시간 기도하고 명상을 하시잖아요.”

내 질문에 대주교가 설명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혼잣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 관념은 유일신으로서의 신을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삼위일체이며, 공동체이고, 깊은 교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이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수행하더라도 혼자가 아닙니다.

... 사람들은 연대에 속하고 싶어하죠. 나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싶어하며, 그들이 겪는 일은 다른 이들도 겪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해요. 우리가 일부러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외로움을 느끼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외로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느끼길, 특별해지길 원해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나는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렵고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방안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의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포용하고 환대해줄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가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뜻함과 포용 덕에, 마음의 문을 닫았던 이들이 아름다운 꽃처럼 마음을 활짝 여는 모습은 참 놀라워요.”

- 달라이 라마 · 투투 대주교 · 에이브람스, 「JOY 기쁨의 발견」(예담) 중에서

■ 마음으로 읽는 글 ■

수박을 들고 가는 사람

- 이선영

그 덩어리가 대체 무엇이기에, 실은 조금 전 과일전에서 제 손이 고른
그 순간 제 생의 무게가 된 덩어리를 들고 가는 사람,
가야 할 시간과 거리와 무게는 가늠해 보셨는지
당겨오는 팔 때문에 입 언저리는 실룩거리고
이마엔 땀이 맺히고 허리는 저려 오고
벌써 한번 왼손이 오른손의 안부를 물은 적이 있는,
제법 팽팽하던 두 다리의 박자가 험거워지고 있는 저 사람
혼자 들면 무거워지고 여럿이 나누면 가벼워질 덩어리,
찌어억 찌르럭 속이 벌어지기 전에는 아직 마법에 걸리기 전의
허드레 호박이나 다름없는 덩어리이련만
저 이의 입꼬리에 담긴 결의와 수고로운 팔다리를 보라,
잘 익은 붉은 태양이라도 담아가는 듯한 기세 아닌가!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한완식

장로 :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곽권희 장원호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김 린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